

명상의 시간

그리운 그 마음

박 장 희

본회 사료기술연구소장

그리운 그 마음을 알면
그 마음의 허전함도 알아볼 수 있으면만
그리운 그 마음의 속내를 몰랐으니
그 마음의 허전함도 달래는 법 알지 못했네
그저 그림고 보고 싶을 뿐
그림고 보고 싶는데 이유가 있으면만
그 사람 못 보면 나 죽을 것 같애
그 마음의 애절함이 피를 말리고 살을 말렸지

그림고 아쉬움 가슴조이며
그 모진세월 삭히어온 그 누님들 같이
그리운 그님도 그 모습 그대로
그렇게 오늘밤도 그 거울 앞에 앉아있겠지